

The Greatest Gift: Salvation (Ephesians 2:1-10)

Introduction:

If you have been reading the news in the past week or if you were on Bourke street on the 9th of November, you would have heard and seen the tragic news which involved the stabbing of 3 victims, 1 of which has passed away. And our hearts and prayers go out to all the families including the offender's family who have also lost a loved one. It doesn't take long for you to hear more tragic news on the radio, or on the internet. The offender of the 2017 January Bourke street terror attack was found guilty this week of killing 6 people and injuring 27. And it is times like these, people start feeling insecure about life and the uncertainties of the future. Many start thinking about the realities of death. And it can make people start wondering, "What is wrong with the world today?". Some will blame ISIS, Islamic extremists. They will blame all the crazy people all around the world. Is that "what is wrong with the world today?". I can assure you, even if there were no Islamic extremists, there would be millions of problems. The killing of innocent babies. The killing of people called assisted suicide or euthanasia. There are still Wars, murder, rape, human trafficking.

최근 몇주간 뉴스를 보셨거나 11 월 9 일에 Bourke street 에 계셨다면 3 명이 칼에 찔리고 한명이 숨진 안타까운 소식을 듣거나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도는 사망한 가해자의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의 가족들을 향합니다. 라디오나 인터넷을 보면 이러한 비극적인 뉴스를 접하는게 어렵지 않습니다. 2017 년 1 월달 Bourke street 테러사건의 가해자는 이번주에 27 명의 부상과 6 명의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사람들은 인생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현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 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럴까".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인 ISIS 를 탓합니다. 세상에 있는 미친 사람들을 탓할 것 입니다. 이것이 요즘 세상의 문제일까요? 만약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문제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아기들이 죽음을 당하고 보조자살이나 안락사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 살인, 강간 그리고 인신매매가 아직 일어나고 있습니다.

There is a man called G. K Chesterton, he was prolific writer, poet, philosopher, the list goes on. Wikipedia tells me that he is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prince of paradox". It is reported that the Times once sent out an inquiry to famous authors, asking the question, "What's wrong with the world today?".

G. K. Chesterton supposedly responded,

"Dear Sir

I am.

Yours, G.K. Chesterton"

I don't know the extent of what he means by "I am", but he does recognise something wrong with Humanity.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us.

G.K. Chesterton 이라는 사람은 다작 작가, 시인, 철학자 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 위키백과에 의하면 그는 "역설의 왕자" 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The Times 에서 유명한 작가들에게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보냈었습니다. 이 질문에 G.K. Chesterton 은 이렇게 답 했다고 합니다,

"Dear Sir

I am.

Yours, G.K. Chesterton"

그가 “제가 문제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책임을 이야기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인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Human philosophy, reasoning and wisdom try to give an answer to the problems of the world. But they miss the mark. Quite a bit. And the reason why they do, I think is because they have missed a very important truth. If you asked people whether or not humans are inherently good, many would say yes. In fact, even many Christians believe that humans are inherently good. Ligonier ministry conducted a survey, surveying 10,000 “Christians”, and one of the statements was “Everyone sins a little, but most people are good by nature.”. 24% strongly agreed, 43% somewhat agreed, 7% were not sure. Only 25% of the Christians knew their bible well. The bible makes it very clear on “what is wrong with the world today”, it is very clear on the condition of mankind. And in our passage today, Ephesians 2 could not be any clearer on the depravity of mankind, and the only solution to the world’s problem.

우리의 철학, 논리와 지혜는 세상의 문제들의 대한 답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답을 줍니다. 이들의 답이 잘못된 이유는 아마 그들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됩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사람이 본질적으로 선한지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Ligonier ministry 가 만명의 “크리스천”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모든 사람들은 죄를 조금 짓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선하다”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24%는 강력히 동의, 43%는 어느정도 동의, 그리고 7%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습니다. 크리스찬 중 25%만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인류의 상태에 대해 확실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 2 장은 인류의 타락과 세상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Ephesians 2:1-10 tells us that

1. We are by nature, **Spiritually Dead in Sin (v1-3)**
2. We are only made **Spiritually Alive in Christ (v4-7)**
3. We are **Spiritually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for good work (v8-10)**
 1.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안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 (1-3 절)
 2.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살아났다 (4-7 절)
 3.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 영적인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선한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8-10 절)

Spiritually Dead in Sin (v1-3):

We have seen already in chapter 1 how Paul has given praise to God for every spiritual blessing that there are in Christ in the heavenly realms, and the details of them were laid out in the first 14 verses. He has moved on and prayed extensively that God would give them the Spirit of wisdom and of revelation in the knowledge of him, that they would know the hope to which God has called them to, what are the riches of his glorious inheritance in the saints, and what is the immeasurable greatness of his power towards us that believe. That same power which raised Christ Jesus from the dead and seated him to have all authority and power over all things. (1:17-23)

우리는 1 장에서 이미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 찬송하는 것과 그 복에 대한 설명을 첫 14 절에서 봤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 그리고 그들을 믿게 한 힘의

위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신 그 능력입니다 (1:17-23).

He now moves to remind them of what some of that immeasurable greatness of his power looks like to believers. And unless we understand the first 3 verses, we will miss how great and mighty God is. We will in fact diminish the gospel message if we don't hold onto the truths of these verses.

Verse 1-2 says, "¹And you were dead in the trespasses and sins ²in which you once walked, following the course of this world, following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the spirit that is now at work in the sons of disobedience (Ephesians 2:1-2)

이제 바울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3 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지를 놓치게 됩니다. 이 구절의 진실을 놓친다면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1-2 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엡 2:1-2).

Paul describes his reader's pre-Christian past, their identity before they were a Christian. And he begins this section with an emphatic "you". These gentile believers were "dead in the trespasses and sins". And we know that he isn't specifically talking about physical death. We look around the world and see many non-Christians alive. Many non-Christian athletes with healthy bodies. So, what does he mean by "dead"? What he means is strongly related to trespasses and sins. He is thinking about what it means to be in sin. Before God, because of our sin, because of our trespasses or transgressions, we are "dead in our sins". Spiritually dead! This points to the present condition of those apart from Christ. Your deadness relates to being separated from God. Ephesians 2:12 explains it as being "separated from Christ" or in Ephesians 4:18, "They are darkened in their understanding, alienated from the life of God because of the ignorance that is in them, due to their hardness of heart". Their pre-Christian condition is a people who walk in sin, live in sin, who are rebellious against God, enemies of God, hate God and reject God. Because "true" life, "real" life can only be found in union with Christ. In fellowship with the living God.

바울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기 이전의 과거를 설명 합니다. 그는 이 부분을 "너희"를 강조함으로 시작 합니다. 이 이방인 신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구체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아도 많은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이 아닌 운동 선수들도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일까요? 그가 의미하는 것은 허물과 죄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는 죄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이것이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과 관련돼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 장 12 절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또는 에베소서 4 장 18 절에서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크리스천이 되기 전의 상태는 죄 가운데서 걷고, 죄안에서 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절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참된"삶, "진정한"삶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만 말입니다.

Romans chapter 1-3 give a detailed description of what deadness in sin looks like. Romans 3:10-11, "as it is written: "None is righteous, no, not one; no one understands; no one seeks for God."

Verse 18 ““There is no fear of God before their eyes.”. There is nothing good about being in sin. Their hearts are totally corrupt. They do not, can not, seek God. They have no fear of God in their eyes and heart. Ephesians 2:2 tells us that they once “walked” in it, “following the course of this world” meaning freely living a worldly life-style. A life style shaped and completely influenced by the world. Their behaviour, habits, morality were influenced by societies attitudes, habits, standards instead of God’s. They were in bondage with the present evil-age. They were “following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That draws our attention to spiritual influences, ultimately to Satan, or the devil who is using his evil powers and influences in this world. Ephesians 4:27 calls him Satan, 6:11 calls him the Devil, 6:16 calls him the evil one. In the gospels- Matthew 9:34, 12:24- The prince of demons, John 12:31, 14:30 calls him the ruler of this world. They were following Satan and all his minions. The Devil is further characterized as “the spirit that is now at work in the sons of disobedience”. He is working his power in the lives of men and women. They are rebellious against Gods authority, they don’t respond to praise and worship for God’s goodness and providence, which they were made for. They reject the gospel and disregard his will. They are called the “sons of disobedience.”

로마서 1-3 장은 죄안에서의 죽임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10-11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8 절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죄에 빠져있는 것에는 좋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부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눈과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 장 2 절은 그들이 한때 그 안에 걸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적인 생활방식 대로 자유롭게 살았다고 말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해 형성되고 완벽하게 영향을 받은 생활방식 입니다. 그들의 행동, 습관, 도덕성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태도, 습관 그리고 세상의 기준의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악한 시대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영향, 궁극적으로 그의 악한 능력과 영향을 이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탄에게 주의를 돌리게 합니다. 에베소서 4 장 27 절은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고, 6 장 11 절에서는 마귀, 6 장 16 절에서는 악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귀신의 왕 (마 9:34, 12:24), 이 세상의 임금 (요 12:31, 14:30) 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들은 사탄과 그의 부하들을 따랐습니다. 마귀는 또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섭리에 대한 찬양과 예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웁니다.

And these truths were true for Paul and his fellow Jewish believers and us. Verse 3, he becomes inclusive and he says, “— ³among whom we all once lived in the passions of our flesh, carrying out the desires of the body and the mind, and were by nature children of wrath, like the rest of mankind.”

그리고 이 진리는 바울과 다른 믿음의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실입니다. 3 절에서 그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

All these pre-Christian traits were true for Paul. And he gives more descriptions of what it means to be in sin. It means living “in the passions of our flesh, carrying out the desires of the body and the mind”. Sin has completely corrupted the whole body. The whole mind. There is nothing which has not been tainted with sin. In fact, at the end of verse 3 he says, that they were “by nature children of wrath, like the rest of mankind.”. Paul says something so politically incorrect, All of mankind are by nature children of wrath. It

echoes what I've read from Romans 3. Are humans inherently good? No. We are by nature children of wrath. People are corrupt. And that's the reason why there is so much evil in this world. No one is innocent.

이러한 크리스천이 되기 전의 사람들의 특징들은 바울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죄는 온 몸과 마음을 완전히 부패 시켰습니다. 죄로 오염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3 절의 끝에서 바울은 그들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 합니다. 바울은 모든 인류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3 장에서 읽은 것을 되풀이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입니다. 사람들은 부패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악이 많은 이유입니다. 아무도 결백하지 않습니다.

The weight of the punishment of sin becomes so true. We are deserving by nature, God's wrath and judgement. And if you were here last week and heard Douglas speak on Revelation, the scary picture of judgement is made so clear in Revelation 14:10-11, “ he also will drink the wine of God's wrath, poured full strength into the cup of his anger, and he will be tormented with fire and sulphur in the presence of the holy angels and in the presence of the Lamb. And the smoke of their torment goes up forever and ever, and they have no rest, day or night, these worshipers of the beast and its image, and whoever receives the mark of its name.” Eternal Judgement, condemnation was what we deserved. What all of mankind deserves. Because within ourselves, we wanted nothing but sin.

죄에 대한 벌의 무게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들 입니다. 지난주에 더글러스 교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들으셨으면 요한계시록 14 장 10 절에서 11 절에서 그려지는 심판의 무서운 그림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영원한 심판, 정죄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 밖에 원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We are by nature, **Spiritually Dead in Sin**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Spiritually Alive in Christ (v4-7)

But GOD...! Verse 4-5, “⁴But God, *being rich in mercy*, because of the great love with which he loved us, ⁵even when we were dead in our trespasses, **made us alive together with Christ**—by grace you have been saved—.”

But GOD...! 4-5 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These are 2 amazing words. BUT GOD. We were deserving of eternal righteous wrathful judgement. We were deserving of being in complete separation with God forever and ever, with no rest day or night. BUT GOD, being rich in mercy, because how great and mighty, and amazing and wonderful he is, because of his great love, with which he loved us, made us alive together with Christ. He is not saying anything new. He has already said it in Chapter 1:7, “In hi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our trespasse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race,”. He has poured out his love and grace upon us, whom he

loves. It is because of God's love there is freedom from the bondage of sin, there is freedom and life in Christ. It echoes what Paul writes in his letter to the church of Rome, Romans 5:6-11,

“⁶For while we were still weak, at the right time Christ died for the ungodly. ⁷For one will scarcely die for a righteous person—though perhaps for a good person one would dare even to die— ⁸but God shows his love for us in that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⁹Since, therefore, we have now been justified by his blood, much more shall we be saved by him from the wrath of God. ¹⁰For if while we were enemies we were reconciled to God by the death of his Son, much more, now that we are reconciled, shall we be saved by his life. ¹¹More than that, we also rejoice in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whom we have now received reconciliation.”

놀라운 두 단어들입니다. BUT GOD. 우리는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낮과 밤에 쉬이 없이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마땅했습니다. BUT GOD,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크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1 장 7 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과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인 로마서에서 반복 됩니다. 로마서 5 장 6-11 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This is an incredible truth brothers and sisters. Why is the gospel message so amazing? Because of the hope! While we were still sinners, while we were still dead in our sins, while we still rejected God and hated him, and rebelled against him. While we wanted nothing but sin! GOD, made us alive together in Christ. God showed his love, poured it out upon us, and saved us. He made us spiritually alive in Christ. And you know why? Well, Paul inserts in both passages the context in which Christ died for u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even when we were dead in our trespasses”, this does not just magnify the amazing love God has for us, but shows us that it is definitely not because we chose God and we loved him. But it is purely by God's grace and initiative. Salvation, being made alive in Christ, being born again is purely and solely by God's choice. “even when we were dead in our trespasses, (he) made us alive together with Christ”. Praise be to God. We now have true life, real life in Jesus. That same immeasurable power that raised Christ Jesus, has made us alive together with him. And that's why, Paul inserts a side point, just to let you know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It is not his main point just yet, but you need to know, it is by grace.

이것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의 메시지가 놀라운 것일까요? 소망 때문 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가운데 죽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미워하고 죄 밖에 원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살리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은 두번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라고 더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대해 주는 것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것,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이제 진정한 삶,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라는 포인트를 더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그의 주요 포인트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And this love and grace does not stop here. Verse 6-7 says,

“— 6 and raised us up with him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⁷ so that in the coming ages he might show the immeasurable riches of his grace in kindness toward us in Christ Jesus.”

Paul makes it clear, God makes us alive in Christ, and he also raised us up, and seated us up with him in the heavenly places. We are glorified with Christ. We are co-heirs with Christ. We are reigning with Christ. We have already seen last week, that Christ is the head of the church, he is the head of the universe. Ephesians 1:21-23, “²¹ far above all rule and authority and power and dominion, and above every name that is named, not only in this age but also in the one to come. ²² And he put all things under his feet and gave him as head over all things to the church, ²³ 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all in all.”

이 사랑과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6-7 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천국에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립니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와 세상의 머리 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1 장 21-23 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That is so amazing. We no longer have bondage to the world, the devil to the flesh and sin. He has divinely rescued us. Made us alive in Christ. And has given us a new identity in Him. A Raised people. A seated people in the heavenly places with Christ Jesus. Instead of eternal judgement, we now have eternal peace and joy in Jesus. And Paul gives us the reason, it is so that for all eternity, in the coming ages, God “might show the immeasurable riches of his grace in kindness toward us in Christ Jesus”. It is a demonstration of his infinite grace and love. And it is towards us. We are the receivers, the recipients of the generous love of Christ. We were enemies of God, but he still did this for us. Who can give their life for their enemies? No one but Christ.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마귀, 육체 그리고 죄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습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살리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자리를 얻은 사람들. 영원한 심판 대신에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유를 제시합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이제 곧 다가올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대한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누가 그들의 원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By his infinite love, by his immeasurable riches of his grace in kindness towards us, he has made us **Spiritually Alive in Christ (v4-7).**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지극히 풍성한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살리셨습니다.

Spiritually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for good works (v8-10)

⁸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your own doing; it is the gift of God, ⁹not a result of works, so that no one may boast. ¹⁰For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beforehand, that we should walk in them.

Paul has just explained that the only reason why Christians are who they are is because of his amazing grace which will be shown throughout all eternity. And he has already inserted in verse 5 that it is by grace. This last paragraph explains more fully the nature of salvation and summarises all he has said. And it is a humbling 3 verses. Just like how the first 3 humbled us to recognise our deadness in sin. These last 3 verses will give us a clearer vision of how we are saved. These verses have been called the “heart of Paul’s Gospel” because it captures and summarises the essence of some or the great thoughts that Paul develops in Romans and Galatians.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 2:8-10).

바울은 영원토록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 됨의 유일한 이유라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5 절에 이것은 은혜로 인한 것이라고 말 했습니다. 이 마지막 단락은 구원의 본질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3 절입니다. 첫 3 절이 우리의 죄가운데의 죽음을 깨닫게 한 것과 같이 마지막 3 절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더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발전시킨 생각들을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불러 왔습니다.

Salvation is by “grace”, God’s free, unmerited, underserving mercy towards us, which is received by “faith” which is our humble trust in the lordship and saving work of Christ. And this echoes the reformation. By grace alone in Christ, through faith alone in Christ is there salvation. And to make it clear that is not because we have done great things that we are saved. He inserts the second half of verse 8 and 9. “And this is not your own doing; it is the gift of God, ⁹not a result of works, so that no one may boast”. If you have understood the first 3 verses of Ephesians 2, it should be impossible for you to come conclude that you are saved by your own works, because of your own goodness. We were dead in our trespasses and sins. We only wanted to rebel against God. We didn’t want to be in union with God. We would not trust in God. Romans 8:7-8, “For the mind that is set on the flesh is hostile to God, for it does not submit to God's law; indeed, it cannot. Those who are in the flesh cannot please God.”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우리가 받을 가치가 없는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과 구원하심에 대한 우리의 겸손한 신뢰인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은 개혁에서 되풀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게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8 절과 9 절의 뒷부분에 이것을 더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 장의 첫 3 절을 이해 하셨다면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 여러분의 선함으로 인해 구원받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 장 7-8 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But by grace God worked in some people's heart, to bring them into a renewed relationship with him. To open their eyes to the truth of the gospel. To change their heart of stone to a heart of flesh. It is a gift of God. Faith, the ability to respond to God, is a gift from God. But you know, I used to think that this “it” at the end of verse 8, was related just to “faith”. And that is grammatically possible. But I think it is better to understand that Paul is thinking about the whole process of salvation as a gift. Including faith. And that is mind blowing. The only reason you and I can come as a church to worship God right now, is because God has changed our hearts. He has given us faith in Jesus Christ. And Christ has died on the cross and purchased for us a gift which we could never attain. And we can not boast in ourselves. Let us be like Paul in Galatians 6:14, “But far be it from me to boast except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We can only boast in what God has worked in our hearts and done for us on the cross. We only stand here right now hearing his word because of him alone. And he has done that because verse 10, “¹⁰For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beforehand, that we should walk in them.”. God has designed us to be a people who do good works in Christ Jesus for Christ Jesus.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몇몇 사람들의 마음 속에 역사하여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단단한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게 됨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전에 8 절 마지막에 있는 “it”가 믿음에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 했었습니다. 문법적으로도 그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이 믿음을 포함한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값을 치루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루지 못할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 장 14 절에서의 바울과 같이 됩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 시킨 것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 절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We are God's workmanship, people alive in Christ, a new creation in Jesus. (2 Corinthians 5:17), for the purpose that in Christ now we can live the true and new life.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새로운 삶을 사는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들이며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후 5:17).

The purpose of this new creation in Jesus Christ, the reason why we have been freed from the bondage of sin, freed from being dead in our trespasses and sin, freed from following the course of this world and Satan, freed from the passions of our flesh and desires of our bodies and mind, is so that we may be alive in Christ, raised with him so that now we may do good works in him for the glory of God. God has designed us and the church for the glory of his name. The church and his people are his workmanship, which he has prepared from all eternity. Which God prepared beforehand. And we are to walk in them. We are to walk according to God's purpose and will. We are to live the sanctified life. It is not because good works saves us, but it is an appropriate and necessary response to what we were regenerated and recreated for.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의 이유, 죄의 속박, 허물과 죄로 인한 죽음, 이세상과 사탄을 따름, 육신의 정욕에서 자유 함을 얻은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교회와 그분의 백성들은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그분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니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향한 적절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Those who walk in the spirit must live in the spirit. The fruit of the spirit is a necessary reality for those who are in the spirit. And that tells us something about the Christian life and the church.

성령 안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의 삶과 교회에 대해 무언가를 알려줍니다.

Why do we as a church do good works? Why did we do our trivia night to raise funds for the Australian farmers? Why do we serve others, work with the homeless, broken people in the world? Why should you forgive those who have hurt you and betrayed you? Why should you forgive family members and friends? Why should you be patient and loving to the unlovable? Because that is what God has saved you for.

우리는 왜 교회로서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얼마전에 호주 농부들 위한 trivia night 을 했나요? 왜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노숙인들과 힘든 상황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울까요? 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왜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사랑하기 힘든 자들을 인내하고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We do it because it is the outflow of God's gracious work in our lives. It is a necessary application of God's revival in our lives. And so part of the mission of the church and Christian is to not only proclaim the gospel message, but to live it out in good works, not because it saves, only God can save, but because that is what God has designed us for.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 나가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사명의 일부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선한일을 행함으로써 복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인해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The church, the people of God, have been ***Spiritually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for good works to the glory of God.***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로 믿음을 통해 영적인 구원을 얻었고, 이것은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Conclusion:

In moments where there seems to be a lot of corruption and evil in this world. At times where there are mass murders and “terrorists attack”. Many people will be left wondering “What is wrong with the world today?”. They will be looking for an answer.

요즘처럼 세상에 부패와 악이 넘치고 대량학살과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많이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요즘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답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And the church has a very important role. The church are a people who were once **spiritually dead in sin** but now have been **made Spiritually alive in Christ**, and so they know what’s wrong with the world. It is our depravity. Our sinfulness. Our Rebellion against God. Against the moral law-maker. And so, it our responsibility to tell people about the reality of sin. We need to tell people about Jesus and the gospel. Our whole life is completely new now. And so, part of our Christian identity as a church, what makes us different to other social groups and organisations is that we have the answer to the problem of evil and suffering and we need to tell people the remedy through our message and our lives.

교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때는 죄안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입니다.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도덕적인 법을 만드신 이를 향한 반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죄의 현실에 대해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크리스천 정체성의 일부, 우리를 다른 사회 단체와 다르게 만드는 점은 우리는 악과 고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말로,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I think you could summarise the application of this passage by reading Galatians 2:20,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and the life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up for me.”

이 구절의 적용포인트를 갈라디아서 2 장 20 절을 통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That should be our victory cry. It should be the victory cry of the church. We boast in nothing but what Christ has purchased for us on the cross. And now the life we now live, we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purchased for us this new life, who worked in us so that we could go out into the world, as a church, as the people of God, to show them what God has done in our lives, through our good works.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승리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루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